

2016. 06. 13. ~ 06. 19. 주간

89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마늘·양파 생산 및 저장 동향, 가격 전망
- 대파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정남진장흥농협, 표고버섯 150만 달러 홍콩 수출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절화수국 증량제어에 의한 용기재배 관수방법
- 딸기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

정책동향

- 전남도, 귀농인의 집 17곳 추가 조성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해외농업정보

- 개도국 농업관리들 친환경 농업연수 새로운 희망 보인다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3~15mm)보다 적겠음

☼ 농산물 주간 동향(관측정보) 8

- ▶ 마늘 생산 및 저장 동향, 가격 전망
- ▶ 양파 생산 및 가격 전망
- ▶ 대파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4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6

- ▶ 전남도, 전남 친환경쌀, 부산 동부지역 학교급식 첫 공급
- ▶ 곡성군, 노지갯잎 생산 한창... 농가소득 쏠쏠
-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
- ▶ 영암군, 친환경 벼 안전 생산을 위한 포트묘 이앙 연사회
- ▶ 진도군,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5억원 투입
- ▶ 신안군, 꾸지뽕 명품화 사업 탄력 받다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2

- ▶ 정남진장홍농협, 표고버섯 150만 달러 홍콩 수출
- ▶ 한·중 친환경 농수산물 교역 확대 협력방안 제안
- ▶ 최근 5년간 과일·채소류 수출 지속 증가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7

- ▶ 절화수국 중량제어에 의한 용기재배 관수방법
- ▶ 절화수국 청색발현을 위한 황산알루미늄 처리방법
- ▶ 강황 유기재배에 알맞은 재식밀도
- ▶ 강황 부산물인 전초를 기능성 천연향료 생산자원으로 활용
- ▶ 딸기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
- ▶ 잎나물용 식방풍 연중생산 유기재배법 개발
- ▶ 여름철 시설하우스 국산 친환경 차광도포제 이용하세요
- ▶ 재배 쉽고 수량 많은 땅콩 ‘아원’ 개발
- ▶ 벼 키다리병 대폭 감소, 현장 영농지도 3년의 성과
- ▶ 유채 활용법 축제, 기름, 비료 등... 다양하네!

❁ 정책 동향 41

- ▶ 전남도, 귀농인의 집 17곳 추가 조성
- ▶ 전남도, 태풍호우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 ▶ 신선한 농산물 유통 위해 연구기관, 유통업체 손잡는다

❁ 해외 농업정보 46

- ▶ 개도국 농업관리들 친환경 농업연수 새로운 희망 보았다
- ▶ 아시아에 우리 양잠산업기술 전수
- ▶ 한국·일본·대만 모여 귀농·귀촌 정책 공유한다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6. 13.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기술적 매도의 완화와 스퀘어 포지션으로 인해 밀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3.0% 하락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수요일 정점을 찍은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에 있음.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투기적 매입과 미국의 공급량에 대한 수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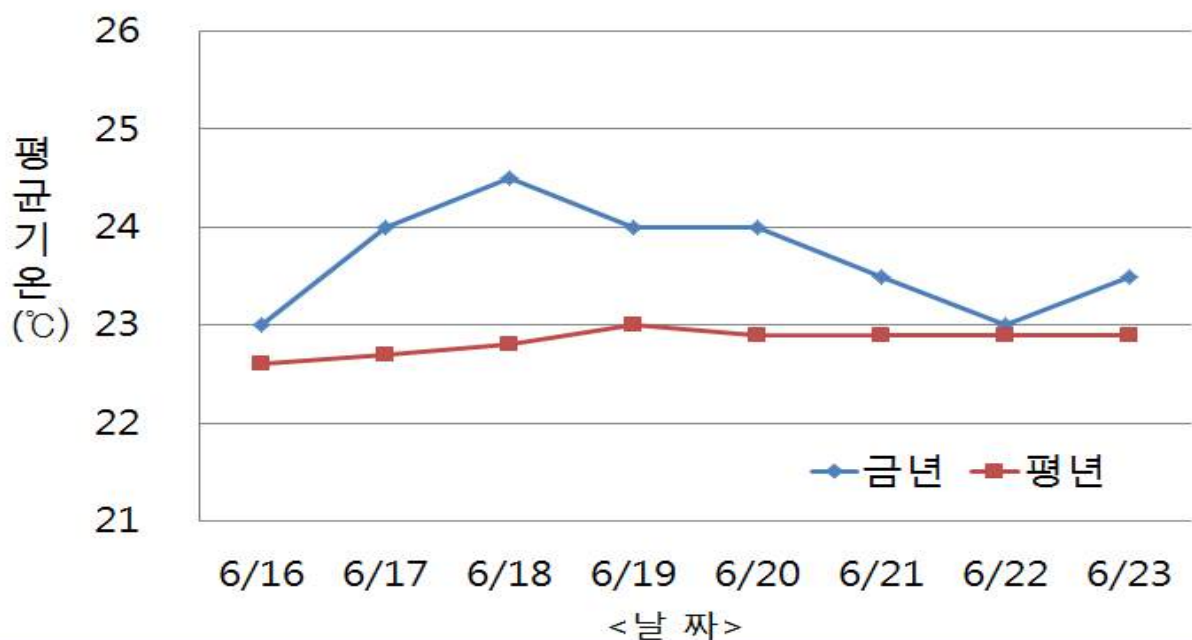
-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2016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하세요
- ▶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3.7	22.8	0.9	27.6	27.7	-0.1	19.8	18.9	0.8	6.8
6. 16.(목)	23.0	22.6	0.4	26.0	27.9	-1.9	20.0	18.3	1.7	4.0
6. 17.(금)	24.0	22.7	1.3	29.0	27.9	1.1	19.0	18.5	0.5	4.5
6. 18.(토)	24.5	22.8	1.7	29.0	28.0	1.0	20.0	18.6	1.4	5.5
6. 19.(일)	24.0	23.0	1.0	29.0	28.0	1.0	19.0	18.9	0.1	5.8
6. 20.(월)	24.0	22.9	1.1	28.0	27.8	0.2	20.0	19.1	0.9	6.3
6. 21.(화)	23.5	22.9	0.6	27.0	27.6	-0.6	20.0	19.2	0.8	7.1
6. 22.(수)	23.0	22.9	0.1	26.0	27.4	-1.4	20.0	19.3	0.7	9.4
6. 23.(목)	23.5	22.9	0.6	27.0	27.2	-0.2	20.0	19.5	0.5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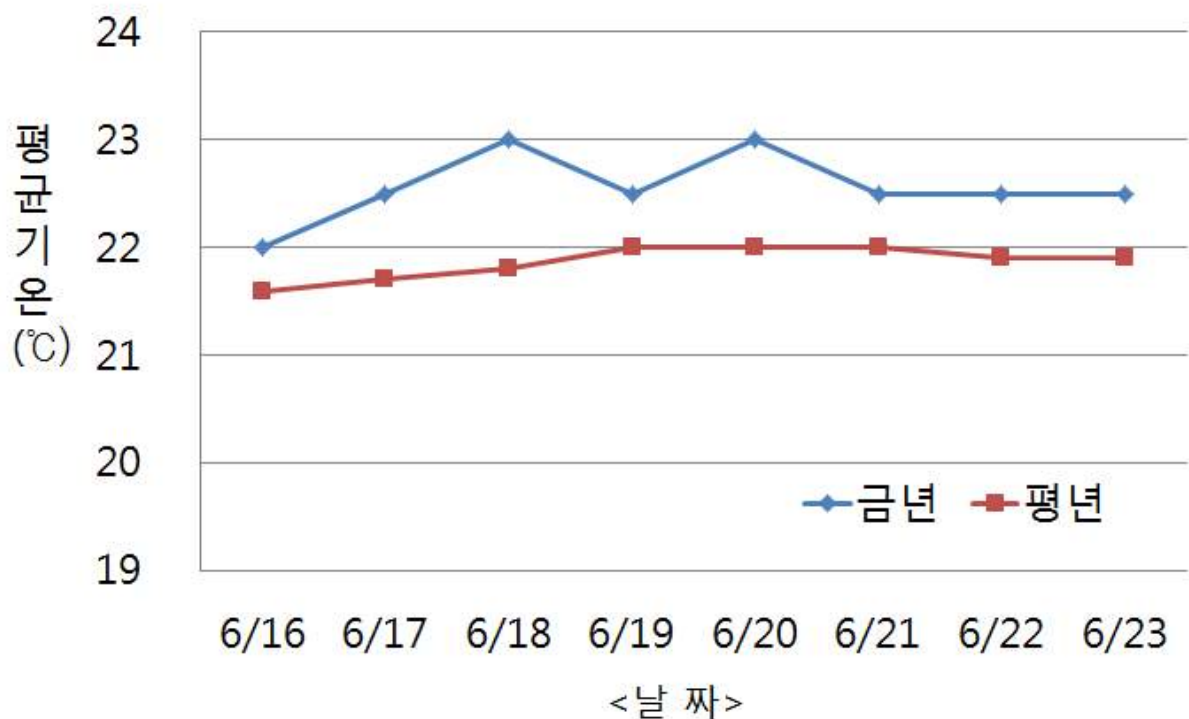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6	21.9	0.7	25.4	26.1	-0.7	19.8	18.7	1.0	6.1
6. 16.(목)	22.0	21.6	0.4	24.0	26.1	-2.1	20.0	18.2	1.8	3.9
6. 17.(금)	22.5	21.7	0.8	26.0	26.1	-0.1	19.0	18.3	0.7	3.8
6. 18.(토)	23.0	21.8	1.2	26.0	26.3	-0.3	20.0	18.5	1.5	4.5
6. 19.(일)	22.5	22.0	0.5	26.0	26.3	-0.3	19.0	18.7	0.3	4.7
6. 20.(월)	23.0	22.0	1.0	26.0	26.1	-0.1	20.0	18.9	1.1	5.1
6. 21.(화)	22.5	22.0	0.5	25.0	26.0	-1.0	20.0	19.0	1.0	6.1
6. 22.(수)	22.5	21.9	0.6	25.0	25.9	-0.9	20.0	19.1	0.9	9.6
6. 23.(목)	22.5	21.9	0.6	25.0	25.7	-0.7	20.0	19.2	0.8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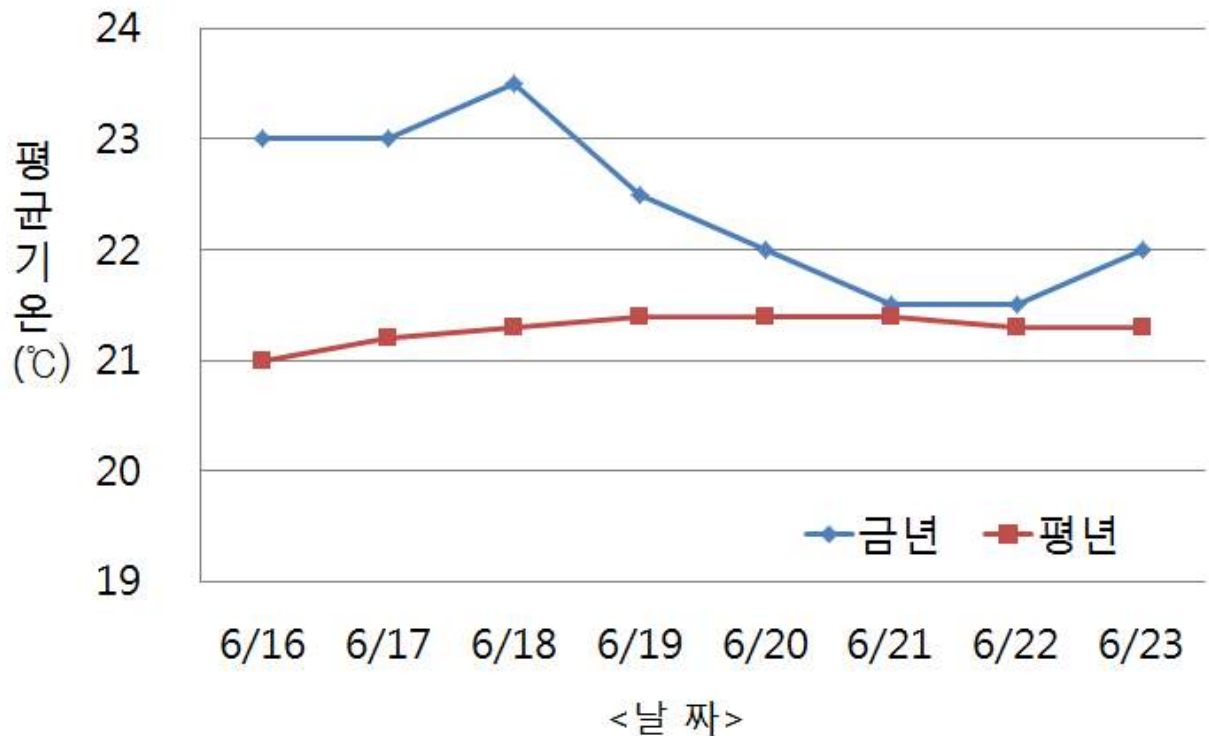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4	21.3	1.1	24.5	24.5	0.0	20.3	18.9	1.4	7.9
6. 16.(목)	23.0	21.0	2.0	25.0	24.5	0.5	21.0	18.4	2.6	6.1
6. 17.(금)	23.0	21.2	1.8	26.0	24.6	1.4	20.0	18.5	1.5	6.6
6. 18.(토)	23.5	21.3	2.2	26.0	24.7	1.3	21.0	18.6	2.4	6.8
6. 19.(일)	22.5	21.4	1.1	25.0	24.7	0.3	20.0	18.9	1.1	6.4
6. 20.(월)	22.0	21.4	0.6	24.0	24.5	-0.5	20.0	19.0	1.0	6.4
6. 21.(화)	21.5	21.4	0.1	23.0	24.4	-1.4	20.0	19.1	0.9	7.2
6. 22.(수)	21.5	21.3	0.2	23.0	24.2	-1.2	20.0	19.2	0.8	10.1
6. 23.(목)	22.0	21.3	0.7	24.0	24.1	-0.1	20.0	19.3	0.7	13.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 동향(관측정보)

마늘 생산 및 저장 동향, 가격 전망

□ 생산동향 : 2016년 마늘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 2016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지형과 난지형 마늘 단수는 봄철 기상여건이 좋아 전년 대비 각각 5,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품종별 마늘 생산량은 한지형과 난지형 남도종이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하나, 대서종 마늘은 재배면적과 단위 증가로 전년보다 2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관측센터 조사치를 적용한 2016년산 마늘 전체 예상단수는 1,378kg/10a이고, 5월 기상여건을 감안한 예상단수는 1,405kg/10a으로 추정된다.
- 조사단수와 추정단수를 감안한 2016년산 마늘 생산량은 2015년산보다 8~10% 증가하나, 평년보다 11~13% 감소한 28만 9천톤 내외로 전망된다.
- 2016년산 마늘 추정 생산량

(단위 : ha, kg/10a, 천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	20,758	1,378~1,405	286.1~291.6
2015	20,638	1,290	266.3
평년	25,757	1,278	329.3
전년 대비	0.6	6.8~8.9	7.5~9.5
평년 대비	-19.4	7.8~9.9	-13.1~-11.4

□ 저장동향 : 2015년산 마늘 재고량 2,600톤 추정

○ 2015년산 난지형 마늘 출고량은 약 8만 3천톤으로 생산량과 입고량이 적어 전년, 평년보다 각각 15,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5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추정

(단위 : 톤, %)

구 분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5	85,576	82,640	287	2,649
2014	105,354	97,274	824	7,256
평년	107,000	102,000	575	4,425
전년 대비	-18.8	-15.0	-65.2	-63.5
평년 대비	-20.0	-19.0	-50.2	-40.1

□ 가격전망 : 6월 마늘 가격 5월 대비 약세 전망

○ 6월 난지형 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마늘 출하량과 2015년산 이월 재고량이 적어 전년(3,940원/kg)보다 높으나, 호남지역 햇마늘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차 하락하여 현재 가격의 80~9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단, 향후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2016년산 햇마늘 작황이 나빠질 경우 6월 마늘 도매가격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상품, 단위 : 원/kg)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015	3,942	4,810	4,611	4,584	5,191	5,571	5,716	5,862	6,030	5,781	5,797	6,261
2014	2,777	3,326	3,367	3,340	3,394	3,356	3,380	3,412	3,460	3,506	3,491	3,540
평년	3,506	3,817	3,570	3,565	3,650	3,640	3,666	3,657	3,673	3,802	3,975	3,949

양파 생산 및 가격 전망

□ 생산전망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잦은 강우로 4월 중순까지 구직경, 엽수 등 생육상황이 좋았기 때문이다.
- 5월 중순 평균 최고 온도가 27℃로 평년보다 높았으나,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작황은 전년보다 좋으나, 4월 중순~5월 상순 잦은 강우로 노균병, 잎마름병 등의 병 발생이 증가하여 전월보다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10a당 수확량은 2015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7, 1% 많은 6,453kg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2015년산보다 13%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1% 감소한 109만 1천톤으로 전망된다.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	16,906	6,453	1,090.9
2015	16,002	6,047	967.6
평년	19,198	6,396	1,227.8
전년 대비	5.6	6.7	12.7
평년 대비	-11.9	0.9	-11.2

□ 생산전망 : 2016년 양파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2016년산 전체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2015년산보다 16% 많으나, 평년보다는 7% 적은 126만 8천톤으로 전망된다.
- 2016년산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	19,891	6,375	1,268.0
2015	18,015	6,072	1,093.9
평년	21,294	6,378	1,358.0
전년 대비	10.4	5.0	15.9
평년 대비	-6.6	0.0	-6.6

□ 가격전망 : 6월 도매가격 전월보다 높을 전망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예상 입고가격은 550원/kg으로 전년(800원)보다 낮으며, 평년과는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6년산 중만생종 포전거래 가격은 3.3m²당 1만~1만 2천원으로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5년에는 작황이 부진하여 5월 중순 이후 포전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무안, 함평의 작황이 좋은 포전을 중심으로 포전거래가 70%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6월 평균 도매가격은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로 전년(985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입고가격 및 포전거래 가격을 감안 할 경우 평년(830원)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6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으며 평년과는 비슷한 650원~850원/kg으로 전망된다.
- 한편, 조생종 양파 출하가 마무리되고 중만생종 입고가 시작되면서 6월 가격은 5월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상순보다 중·하순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파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 생산전망 : 3~6월 대파 정식(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가

- 3~6월 대파 정식(의향)면적 (7월~내년 5월 출하)은 전년 출하기 대파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기 여름대파와 강원 고랭지대파 정식면적은 전년 대비 13% 증가 하였으나, 강원은 고온으로 고자리파리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출하량은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3~6월 대파 정식(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조사시기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5. 20.	13.2	6.3	4.4	6.8	8.0
4. 20.	13.1	6.7	4.2	7.1	7.8

□ 출하전망 : 6월 대파 출하량 전년 대비 11% 증가

- 6월 대파 출하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할 전망이다.
- 6월 출하면적은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봄대파 주산지인 경기와 전북의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단수는 고자리파리 피해로 결주가 많았던 전년에 비해 금년은 결주가 적어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온으로 인한 추대로 상품성은 다소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 6월 대파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단위: %)

구분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체
출하면적	7.8	3.8	6.6	5.7	7.1
단수	4.7	4.0	1.4	4.3	3.8
출하량	12.8	8.0	8.2	10.2	11.2

- 7~8월 출하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6,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경기 여름대파와 강원 고랭지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출하면적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7~8월 대파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7월	6.1	4.9	6.3	3.9	5.9
8월	9.3	5.3	6.3	3.3	8.6

□ 가격전망 : 6월 도매가격 5월보다 낮을 전망

- 6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봄대파 출하량 증가로 5월(1,810원)과 전년(2,170원) 대비 낮은 1,300~1,600원/kg으로 전망된다.
- 6월 상순에는 월동대파 조기종료와 주산지 이동으로 5월 하순 대비 보합세이나, 중순부터 봄대파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2,150	2,630	2,174	2,094	1,807							
2015	1,031	1,508	1,296	1,486	2,012	2,171	1,701	1,911	1,781	1,565	1,689	1,935
평년	1,232	1,564	1,499	1,209	1,372	1,317	1,218	1,470	1,563	1,219	1,383	1,412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6. 1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13)	2주일전 (05/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39,800	41,467	↓ 9.0	↓ 12.7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9,000	186,467	↑ 7.9	↓ 19.6
	고구마(밤)	10kg	30,600	30,800	30,400	30,200	33,240	↑ 1.3	↓ 7.9
	감자(수미)	20kg	24,600	38,200	40,200	32,250	26,013	↓ 23.7	↓ 5.4
채 소 류	배추(봄)	1kg	580	880	1,148	770	426	↓ 24.7	↑ 36.2
	양배추	10kg	5,800	11,200	12,320	10,950	5,393	↓ 47.0	↑ 7.5
	오이(다다기계통)	10kg	13,000	11,333	14,067	15,945	16,117	↓ 18.5	↓ 19.3
	애호박	8kg	12,000	10,400	11,080	10,050	13,113	↑ 19.4	↓ 8.5
	토마토	10kg	13,200	16,200	17,600	16,500	17,603	↓ 20.0	↓ 25.0
	당근	20kg	31,400	32,000	33,080	29,600	32,907	↑ 6.1	↓ 4.6
	건고추(화건)	60kg	710,000	710,000	710,000	820,000	833,200	↓ 13.4	↓ 14.8
	풋고추	10kg	31,600	40,400	45,520	40,800	36,520	↓ 22.5	↓ 13.5
	마늘(깐마늘)	20kg	175,000	175,000	175,000	104,000	108,267	↑ 68.3	↑ 61.6
	양파	20kg	15,000	15,000	14,120	16,350	14,730	↓ 8.3	↑ 1.8
	대파	1kg	1,920	2,110	2,406	2,490	1,572	↓ 22.9	↑ 22.1
	파프리카	5kg	17,200	19,400	18,520	16,150	20,240	↑ 6.5	↓ 15.0
	멜론	8kg	27,400	28,800	25,480	26,300	31,804	↑ 4.2	↓ 13.8
	방울토마토	5kg	12,200	15,200	14,840	14,350	13,303	↓ 15.0	↓ 8.3
	수박	1개	14,000	14,800	15,560	12,850	14,030	↑ 8.9	↓ 0.2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7,200	37,000	36,680	45,200	54,800	↓ 17.7	↓ 32.1
	배(신고)	15kg	44,600	44,400	44,320	39,700	54,320	↑ 12.3	↓ 17.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13)	2주일전 (05/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7,000	527,000	525,000	532,000	561,333	↓ 0.9	↓ 6.1
	느타리버섯	2kg	13,100	12,600	13,640	14,150	12,233	↓ 7.4	↑ 7.1
	새송이버섯	2kg	7,400	7,600	8,200	8,300	8,053	↓ 10.8	↓ 8.1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585	7,532	7,316	6,551	6,061	↑ 15.8	↑ 25.1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36	2,063	1,973	2,340	2,164	↓ 4.4	↑ 3.3
	닭고기	1kg	5,183	5,690	4,951	5,169	5,515	↑ 0.3	↓ 6.0
	계란(특란)	30개	4,912	5,394	5,002	5,828	5,786	↓ 15.7	↓ 15.1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85	0.0	↑ 6.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6. 13.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6,061 천원	5,915 천원	4,041 천원	↑ 2.5	↑ 50.0
	거세	7,459 "	7,274 "	6,086 "	↑ 2.5	↑ 22.6
송아지 (6~7월)	암	3,276 "	3,167 "	1,762 "	↑ 3.4	↑ 85.9
	수	4,013 "	3,866 "	2,479 "	↑ 3.8	↑ 61.9
육우(600Kg)		3,506 "	3,149 "	3,360 "	↑ 11.3	↑ 4.3
젖소수송아지(7일령)		368 "	361 "	216 "	↑ 1.9	↑ 70.4
돼지(110kg)		500 "	432 "	455 "	↑ 15.7	↑ 9.9
육계(원/kg)		1,451 원	1,257 원	1,551 원	↑ 15.4	↓ 6.4
계란(원/특란10개)		949 "	940 "	1,305 "	↑ 1.0	↓ 27.3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 28.5

※ '14년 경매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전남도, 전남 친환경쌀, 부산 동부지역 학교급식 첫 공급

- 무안 친환경쌀영농조합법인, 기장군지원센터 200톤 납품 확정 -

- 전라남도는 전남 친환경쌀이 부산 동부지역 5개 구에 15일부터 첫 공급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 지역은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 등으로 총 공급량은 200톤이다.
- 공급 업체는 무안 꿈여울친환경영농조합으로, 부산시 기장군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에서 밥맛, 안전성 등 엄격한 쌀 품질 검사를 통해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 이에 따라 전남 친환경쌀의 부산지역 학교급식 공급량은 550톤으로 늘었고, 보성 북부농협에서 강서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200톤,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이 연제구 초·중학교 22개교에 150톤을 공급해왔다.
- 이는 부산지역 초등학교 친환경쌀 소요량 2천 800여톤의 20%를 차지하는 규모다. 부산시에서는 동부·서부·중부 3개 권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전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4년 기장군과 강서구에 각각 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정구는 내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 친환경쌀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로 기존 납품처 공급을 늘리고, 금정구급식지원센터에도 공급되도록 홍보 판촉활동을 강화해 부산 전 지역 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 출처 : 전라남도

■ 곡성군, 노지깻잎 생산 한창... 농가소득 쏙쏙

- 곡성군 목사동면의 잎들개 재배규모는 90여 농가 20ha로써 그중 시설재배가 14ha이고 노지재배 면적도 6ha에 이른다. 생산 시기가 시설재배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이고, 노지재배는 6월부터 9월로 연중 생산되고 있다.
- 이와 같이 연중 생산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당초 시설재배 위주의 잎들개 재배방식을 개선코자 노지 재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광주광역시 식당가에서 소비되는 깻잎의 70%는 목사동면에서 생산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잎들개 노지재배는 우선 시설하우스를 경영하기 어려운 고령농업인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두 명의 가족 노동력으로 600㎡까지 재배할 수 있어 연간 6백만원의 소득창출이 가능한데 이는 같은 면적 벼농사 소득의 10배에 달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의 일손부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고령농업인을 활용한 소득창출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목사동면의 2015년 기준 깻잎 생산액은 20ha, 53억여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고령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해 노지깻잎 생산 사업을 전 읍·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

- 고흥군이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3대의 임대용 농기계를 추가로 구매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 지난 2011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용굴삭기, 관리기, 원판쟁기, 논두렁 조성기 등 89종 367대의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수혜 농가가 매년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며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 군은 농번기인 5월과 6월, 9월과 10월에는 주말 근무를 실시하고, 근무시간을 오전 7시 30분으로 앞당기는 등 농업인들이 휴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운반이 어려운 대형 임대농기계는 영농현장까지 직접 수송 해주는 등 더 많은 농업인이 쉽게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또한 “굴삭기 등 조작이 어려운 농기계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과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정비 점검, 안전조작 요령,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830-584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출처 : 고흥군

■ 영암군, 친환경 벼 안전 생산을 위한 포트묘 이앙 연사회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7일 친환경 쌀 안전 생산을 위한 포트묘 이앙 연사회를 금정면 용흥리에서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 포트육묘는 포트에 벌써 2~3립을 포트 전용 파종기로 파종해 30~40일 정도 성묘(25~30cm)로 키워 포트묘 전용 이앙기로 분답에 이앙하는 방식으로 기존 산파 육묘를 통한 이앙재배보다 육묘기간이 길어 2모작에 유리하며 깊은 물대기가 가능해 잡초방제에 탁월한 이점이 있다.
- 또한 이앙 시 뿌리가 절단되지 않아 활착이 빠르고 초기 생육이 왕성하며 줄기가 굵어 병해충과 도복에 강하고 관행에 비해 상토는 50%, 종자는 70%를 절감할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포트묘 이앙은 3.3m²당 50주 이앙으로 묘를 30cm 이상 성묘로 키워서 이앙하기 때문에 초기 잡초방제에 탁월하고 유효 분얼이 왕성하며 도복에 강해 친환경 벼농사 재배에 가장 적합한 농법으로 앞으로 포트묘 농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출처 : 영암군

■ 진도군,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5억원 투입

- 진도군이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 경영비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짐을 덜어주고자 농기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이 사업에는 총 5억원이 투입돼 건조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2016년 본예산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지난해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으로 받은 상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추가 지원했다.
- 지원 기준은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구입가격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역농가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진도군

■ 신안군, 꾸지뽕 명품화 사업 탄력 받다

-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 선정 국비 등 30억원 확보 -

- 신안군이 대표적인 소득 작목인 꾸지뽕 명품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
- 신안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주관하는 '2017년도 향토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신안 꾸지뽕이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하게 된다.
- 군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향토산업을 통해 꾸지뽕을 제품화 할 수 있는 가공공장 설치 및 대내외 홍보 마케팅 활동, 꾸지뽕 기능성 연구 및 상품개발, 지리적 표시 등록 등 S/W와 H/W사업을 연계 투자해서 신안군의 대표적인 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안 꾸지뽕은 팔금면을 중심으로 현재 173농가에서 4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40%, 전남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향토자원으로, 향후 2020년도까지 재배면적을 100ha까지 확대, 전국 최대 꾸지뽕 특화 단지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원물 공급기반 구축 및 꾸지뽕 약리 성분을 규명 제품화 하는 등 꾸지뽕 명품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꾸지뽕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농업 6차산업의 표준 모델지구로 육성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신안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정남진장홍농협, 표고버섯 150만 달러 홍콩 수출

- 장홍의 대표 특산물인 원목 표고버섯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 정남진장홍농협(조합장 강경일)은 지난 9일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원목 표고버섯 3.5톤을 실은 컨테이너가 홍콩 수출을 위해 부산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수출길에 오른 표고버섯은 14만 달러, 한화로는 약 1억 6천만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장홍에서 생산되는 원목 표고버섯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홍콩으로 수출되며 그동안 내수 위주였던 표고버섯 마케팅 전략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 강경일 조합장은 “경제사업 활성화에 주력해 유치지점에서 표고버섯 산지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생산한 표고버섯을 매년 약 100억원 정도를 구매하여 국내와 해외에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 표고버섯은 부산항에서 선적되어 홍콩으로 입항되며, 내년 5월까지 매달 20피트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 총 35톤, 150만불(약 1,700백만원)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홍콩 수출은 지난해 11월에 처음 장홍 원목 표고버섯을 수입하여 현지 시장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판촉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결과로 알려졌다.
- 입맛이 까다로운 홍콩 소비자들에게 원목 표고의 우수성을 입증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물량은 2배 이상, 품목도 3배 이상 늘었다.

- 정남진장흥농협 농산물유통센터(센터장 김재만)는 전남도청과 aT와 손잡고 수차례 홍콩식품박람회에 출품하여 장흥표고버섯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참나무 원목을 재배하고 있는 장흥표고버섯 현장과 체계화된 시스템에 따라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는 정남진장흥농협APC의 선별장 모습을 견학할 수 있도록 팸투어도 추진했다.
- 정남진장흥농협은 이번 수출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대만 등에도 추가적인 수출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장흥군

한·중 친환경 농수산물 교역 확대 협력방안 제안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1회 한·중지사 성장회의에 참석해 ‘친환경 농수산물 교역 확대를 위한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 이날 회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주년을 맞아 두 나라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처음 마련된 것이다.
- 중국 측에서 리샤오린 인민대외우호협회장,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뤼쑹장춘 시짱자치구 주석 등 7명과 한국 측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대전광역시장 등 8명이 참석했다.
- 회의에서 이 지사는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1번지가 된 전남을 소개했다.

- 이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 친환경 식품 수요 증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두 나라 지방정부 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한·중 지방정부 간 친환경 농수산물식품의 교역 확대를 위해 △매년 양국 지방정부가 윤번제로 친환경 농수산물식품 박람회 개최 △‘한·중 지방정부 친환경농수산 교류협력 협의체’ 구성 및 기술 정보교류 확대 △한·중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인증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친환경 농식품 인증 상호 인정 협약 체결 △친환경 농식품 품목별 검사검역, 통관 협상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대책 공동 추진 △중국의 자본과 시장, 한국의 원료 공급과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물식품 한·중 합작사업 추진 등 5가지 방안을 중국 측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 토론에 나선 이 지사는 텐진시 자오하이산 부시장이 통관편의 정책이 많은 텐진항을 이용해 농수산물식품 등 한·중 무역 교류 확대를 희망한 데 대해 “연내 텐진시를 방문,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의 텐진항을 통한 중국 대도시 수출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중지사성장들은 한·중 지방정부 간 투자무역환경 등 경제 분야와 민간 부문의 교류 확대, 관광 설명회 박람회포럼축제 등 국제교류 행사에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다.
- 한·중지사성장회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인민대외우호 협회 공동 주관으로 앞으로 2년마다 순번제로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2018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최근 5년간 과일·채소류 수출 지속 증가

- 2011년 비교 지난해 22.9% 증가...배·딸기·파프리카 수출확대 주도 -

- 지난 5년간 과일류에서는 배와 딸기, 채소류에서는 파프리카와 배추가 해외 시장에서의 꾸준한 소비 확대로 우리 과일류 및 채소류의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최근 5년간 과일·채소류 수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과일·채소류의 수출실적은 3억 400만달러로 (13만 5,000톤) 5년 전인 2011년 2억 4,800만달러(9만 7,000톤)와 비교해 금액은 22.9, 중량에서는 40.3% 증가했다.
- 지난해 1억 2,7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과일류는 2011년(9,800만 달러) 대비 29.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우리 배와 딸기·포도의 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배의 경우 높은 당도와 풍부한 과즙, 숙성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함 때문에 경쟁 상대인 중국산의 공세 속에서도 미국·대만 등지에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 배의 수출실적은 2011년 4,700만달러(1만 7,988톤)에서 지난해 5,800만달러(2만 2,493톤)로 5년간 금액은 22.1, 공급물량은 25% 증가했다.
- 아세안(ASEAN)지역에서 고급 과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딸기는 높은 당도와 안전성,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2011년 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300만달러를 기록해 6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물량도 같은 해 2,370톤에서 3,676톤으로 55.1% 늘었다.

- 포도의 경우 수출액은 크지 않지만 시장 다변화로 물량은 2011년 323톤에서 지난해 817톤으로 약 2.5배 늘었다.
- 채소류 수출은 지난 2011년 1억 5,000만 달러에서 2012년 1억 7,400만달러로 확대됐지만, 이후 엔저 장기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지난해 1억 7,800만달러에 그쳤다.
- 2011년 대비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18.3%, 하지만 웰빙채소로 일본에서 꾸준히 각광받고 있는 파프리카를 비롯한 고추과 작물 및 대만 내 작황 부진에 따른 대체 품목으로 현지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추·양배추 덕분에, 채소류 전체 수출물량은 2011년 5만 9,575톤에서 지난해 9만 595톤을 기록해 최근 5년간 52.1%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절화수국 중량제어에 의한 용기재배 관수방법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절화수국 용기(화분)재배에서 화분의 무게변화에 따라 관수하는 방법임
 - 용기 3개의 무게를 저울(측정부)로 측정하여 중량변화에 따른 신호 전달 장치(제어부)를 기존 활용하고 있는 양액공급기에 부착하여 사용함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절화수국 용기재배에서 중량제어 방식을 이용할 경우 양액비료 및 원수 사용량은 일사비례제어 200J/cm²보다 42.5% 절감 가능
- 경제성 분석 (20a기준)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증가되는 비용 : 3,000,000원 - 중량제어 장비 1식 : 3,000,000원 - 계(A) : 3,000,000원	○ 증가되는 이익 - 양액비료 절감 42.5% : 1,275,000원 - 절화수명 증가에 따른 수취가 향상 = 100원/본 24,000본 × 100원 = 2,400,000원 - 계(B) : 1,275,000 + 2,400,000 = 3,675,000원
○ 추정수익액(B-A) = 3,675,000원 - 3,000,000원 = 675,000원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절화수국 용기(화분)재배시 저울(측정부)와 신호전달장치(제어부)를 설치 후 저울에 화분 3개를 배치하여 제어부에 관수기준 중량을 설정함
- 양액공급기의 관수 설정은 제어부의 신호에 따라 관수되도록 하며 1회 공급량은 100ml로 조절하며 생육단계에 따라 매주 1~2회 또는 수확 후 용기의 전체중량을 관수 기준 중량으로 설정하여 관수량 조절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기광연, 윤봉기

■ 절화수국 청색발현을 위한 황산알루미늄 처리방법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절화수국 '르네이트'에서 청색발현을 위한 황산알루미늄 관주처리 방법
 - 황산알루미늄 2,000ppm 희석액 500ml를 11월부터 1~2주 간격으로 12회 관주 시 안정적인 청색 발현
- 황산 알루미늄 처리시기에 따른 수국의 화색변화 (2015)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절화수국의 화색조절을 통한 시장 수취가 향상
- 경제성 분석

(10a기준)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 950,000원 - 황산알루미늄 25.2kg : 250,000원 - 관수노동력 14회 : 700,000원 - 계(A) : 9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 수취가격 향상 : 296원¹ × 11,592본² = 3,431,232원 - 계(B) : 3,431,232원 <p>¹ 양재동 화훼공판장 '15년 청색과 분홍색의 평균 수취가 차</p> <p>² 절화수국 품종의 주당 연간 평균 절화 생산량(상품율 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수익액(B-A) = 3,431,232원 - 950,000원 = 2,481,232원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절화수국 용기(화분)재배에서 활용 가능
- 월동 전 11월부터 황산알루미늄을 2,000ppm으로 희석하여 주당 500ml씩 관주함, 관주횟수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2주 간격으로 4회, 1월부터 2월까지는 1주 간격으로 8회 등 총 12회 처리함



【수국 시험포장 개화】



【청색발현 모습】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기광연, 윤봉기

■ 강황 유기재배에 알맞은 재식밀도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강황 유기재배에 적합한 재식밀도는 10a당 3,702주(180×30cm, 2열재배)와 4,444주(150×30cm, 2열재배)에서 증수되었음
- 강황 유기재배에 적합한 시비량은 생강 검정시비량의 2배 수준임
- 강황 품종은 룡가와 보라강황 품종이 생육과 수량성이 높음

□ 개발기술 기대효과

- 강황 유기재배 재식거리 75~90×30cm는 재식거리 75×40cm 대비(443kg) 10a당 수량 14% 증수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증가되는 비용 : 마대 등 재료 증가 - 마대 21개 × 440원 = 9,240원 - 인건비 0.1인 × 65,000원 = 8,125원 - 계(A) : 17,365원	○ 증가되는 이익 : 수량 증수 413kg - 수량 413kg × 2,500원 = 1,032,500원 - 계(B) : 1,032,500원
○ 추정수익액(B-A) = 1,015,135원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강황 유기재배에 적합한 재식밀도는 10a당 3,702주와 4,444주에서 증수되며, 시비량은 생강 검정시비량의 2배 수준이 적합하였음.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양승구, 신길호, 박신영, 서운원, 김현지

■ 강황 부산물인 전초를 기능성 천연향료 생산자원으로 활용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강황 전초의 생물시료를 곱은 입자로 파쇄하여 추출하면 생물 절단에 비해 추출시간 단축 및 정유생산량 1.9ml/kg 증가
- 강황 수확 전 먼저 지상부 전초를 수확하여 잎이 황화가 되지 않도록 그늘진 서늘한 곳에 단을 쌓아 보관하여 5일 이내로 향료회사에서 수거토록 함
- 농가 대량 수확시 수분과 신선도 유지위해 $8\pm 2^{\circ}\text{C}$ 저온창고에 비닐로 가볍게 덮어 보관하면 30일 동안 장기보관 및 천연 정유 생산 가능
- 강황 재식밀도별 수확량과 판매수익성, 정유수율 조사 (2015년)



재식 밀도 (주/10a)	생육 상황			수확량 (kg/ 10a)	전초판매 수익성 ²⁾ (천원/10a)	정유수율 (% DW)
	초 장 (cm)	엽수 (개/경)	전초생중 (g/1주)			
3,536	159.5	3.92	890	3,147	7,882	8.4

□ 개발기술 기대효과

- 강황 수확 전 전초를 먼저 수확하여 작업을 하면 작업능률이 1.3~1.5배 향상
- 강황의 부산물인 전초 판매시 10a당 7,882,000원 농가 부수익 증가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비(광주↔진도, 3.5톤) : 150,000원 - 다발묶기, 상차 작업 (2인) : 150,000원 - 계(A) :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00원(/1kg)×3,147kg = 8,182,000원 - 계(B) : 8,182,000원
○ 추정수익액(B-A) = 8,182,000원-300,000원 = 7,882,000원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강황 전초 수확 방법]

- 강황 수확전 먼저 지상부 전초를 수확하여 잎이 황화가 되지 않도록 그늘진 서늘한 곳에 단을 쌓아 보관하여 10일 이내로 향료회사에서 수거토록 함
 - 30~50kg씩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단을 묶어 쌓으면 화물차에 상·하차가 쉬워지고 향료회사에서 적정량의 단을 가지고 정유 생산하는데 작업이 용이해짐
- 강황엽은 쑥이나 다른 약용작물에 비해 지상부 생육이 좋아 재배 수확량이 10a당 3,147kg 생산되는 대량생산 작물로 바이오 소재생산 원료로써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강황 전초를 향료생산용 원료로 판매할 경우 운반비 포함한 1kg당 2,600원은 받을 수 있어 10a당 소득율은 7,882천원 소득을 올릴 수 있음
 - ※ 참고 : 마른 개똥쑥 1kg당 4,000원 거래(운반비 포함)

[강황 전초 수확후 단기 보관 방법]

- 강황 수확 시기는 대부분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이루어지므로 대체로 평균 기온이 10℃ 전후로 낮은 시기여서 저장시 부패율이 낮아 장기보관 가능
 - 농가에서 일시 수확 후 비가림 하우스에서 2주 정도의 보관은 수분과 신선도가 유지되어 향료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출하 전 또는 출하 후 장기보관이 필요할 경우 8±2℃가 되는 장소나 저온창고에 잎이 마르지 않은 정도로 가볍게 비닐로 덮어 보관하면 40일 정도 장기보관이 가능하여 천연 정유 생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강황 전초 수확 즉시 분쇄기로 곱은 입자로 분쇄하여 50~100kg씩 일반 비닐에 담아 약 -5℃의 냉동고에 보관하면 1년 이상 장기저장이 가능하여 천연 정유를 생산 할 수 있음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조경숙, 강정화, 이유석, 양승구, 신길호

■ 딸기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

- 무동력레일작업 시스템 관행 대비 노동력 및 비용 절감, 작업편의성 향상 -

- 장성군(군수 유두석)과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6월 1일 장성군 불태산딸기작목반(대표 표영천) 현지농가 포장에서 딸기 생산비 절감 모델화 사업 중간평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이날 평가회에서는 전남지역 딸기재배 농업인 및 관계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하여 딸기 생산비 절감을 위한 패키지기술에 대한 효과 설명 및 현장시연 등을 실시했다.
- 평가회에서는 특히 무동력 레일작업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 시스템은 하우스 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앉은 자세로 정식, 적엽, 적과, 수확, 운반 등을 할 수 있도록 좌석용 다용도 작업차를 설치하였다.
- 이 시스템은 정식, 적화, 수확, 운반 등 주요 농작업시 일반 작업 운반차 보다 12% 정도의 노동력 및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에 농가들의 신체피로도와 작업능률 등 작업편의성 체감율도 51%가 증대 되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딸기 수경재배 농가들의 농작업 편의시스템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이날 평가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딸기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금년에 실증하고 있는 딸기 생산비 절감 패키지 기술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도 가졌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무동력 레일작업 시스템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악성 노동으로 인한 건강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라며 딸기 수경재배 농가에 확대 보급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전남농업기술원 임경호 농업경영연구소장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10개 작목에 대한 생산비 절감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남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8년까지 전남의 대표 20개 작목에 대한 생산비 절감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잎나물용 식방풍」 연중생산 유기재배법 개발

- 혼합유기질 비료 시용과 벗짚피복 재배시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소비자들로부터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약용작물 중 잎나물로 소비가 많은 식방풍(갯기름나물)의 고품질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식방풍(갯기름나물)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감기와 두통, 발한, 해열, 거담, 관절과 근육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리작용으로 뿌리가 한약재로 쓰이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식방풍 고품질 유기재배법은 혼합유박퇴비를 380kg/10a 뿌리고 잎나물 재배시 생산량이 1,260kg/10a로 표준비료(N-P-K=20-12-10kg/10a)에 비해 11%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C함량도 11ppm 향상시킬 수 있다.
- 또한, 보릿짚이나 벗짚을 절단하여 피복재배시 잡초발생이 70~75% 경감되는 효과로 나물용 안정생산에 유리하였다. 현재 우리도 재배면적이 160ha로 전국의 91%이고 잎나물 생산량은 6.5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여수·고흥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 전남농기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연구사는 식방풍 유기재배기술인 “혼합유박 비료시용과 벗짚절단 피복재배에서 잎나물 수량이 많았으며 품질도 향상되어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약재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고품질 유기재배법을 조기에 확산, 보급시키기 위하여 지역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여름철 시설하우스 국산 친환경 차광도포제 이용하세요

- 하우스 내 온도 3~4℃ 낮춰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서는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여름철 시설하우스 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저렴한 친환경 차광도포제를 개발했다.
- 딸기·참외·파프리카 등의 과채류는 4월 이후가 되면 재배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이 저해돼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
- 기존에 보급된 고온기 시설하우스 냉방을 위한 기술은 시설내부의 많은 습도와 높은 초기투자비 등으로 보급 확대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번에 개발한 차광도포제는 하우스 피복재 바깥 면에 뿌리는 것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사용이 편리하다.
- 개발한 차광도포제는 석회, 전분 등 친환경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희석비율에 따라 차광률(도포제 : 물 희석비율=1:6~10)을 조절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 차광도포제를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바깥 면에 골고루 뿌리면 내부온도를 3~4℃ 낮출 수 있고, 약 2개월이 경과하면 강우에 의해서 서서히 제거되어 별도의 제거작업 노력을 줄일 수 있다.
- 6월 상순경 딸기 육묘시설에 차광도포제를 살포하면 관행보다 묘 크기(관부 직경)가 크고 뿌리 발달이 양호해 우수한 묘 생산이 가능하다.
- 차광도포제는 1,000㎡ 기준으로 15만원 내외의 원료비용이 들며 이는 기존 차광망과 비교했을 때보다 적고, 수입 차광도포제보다도 가격이 30~40% 저렴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재배 쉽고 수량 많은 땅콩 ‘아원’ 개발

- 키 작아 기계수확도 가능... 2017년부터 보급 계획 -

- 그동안 개발·보급한 직립 초형(줄기가 곧게 뻗는) 땅콩들은 가지수가 적고 성숙 후에 키가 큰 편이었다.
- 이번에 개발한 ‘아원’ 땅콩은 직립 초형이면서 줄기 길이가 40cm 정도로 작아 쓰러짐에 강하고 기계수확에도 좋다.
- 성숙기에 이파리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갈색무늬병, 그물무늬병에 강하고, 특히 포기 썩어 말라죽는 흰비단병에 강한 품종이다.
- 포기당 성숙 꼬투리수가 40개 정도이고 100알의 무게가 108g으로 대비 품종 ‘대광’ 보다 22g이나 더 무거우며 외관적인 상품가치도 양호하다.
- 3년간 4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전 지역에서 ‘대광’에 비해 고른 증수를 보였으며 수량은 10a당 474kg으로 약 10% 더 많았다.
- ‘아원’ 땅콩은 올해 종자증식을 거쳐 2017년부터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발작물개발과 배석복 박사는 “최근 알이 굵은 국산 땅콩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원’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품종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벼 키다리병 대폭 감소, 현장 영농지도 3년의 성과

- 철저한 법씨소독 등 농가지도로 3년전 보다 벼 키다리병이 2.3배 감소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벼 못자리에 발생하는 키다리병, 잘록병, 뜸모 등 병해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 올해 5월 상순부터 2주간 전국을 대상으로 못자리에 발생하는 키다리병, 잘록병, 뜸모를 조사한 결과 키다리병은 2016년에 2014년보다 평균 56% 감소했으며, 특히 충북과 전북·경북지역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 농촌진흥청은 벼 키다리병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방제 정보를 지자체에 적기에 제공했으며, 공동육묘장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염된 종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온탕소독과 소금물 가리기(염수선)를 철저히 하도록 매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 피해를 줄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 올해에 잘록병과 뜸모는 발병상자 비율이 0.3%로 평년의 30% 보다 발생이 매우 적었다.
- 특히 뜸모는 마을 단위 하우스 육묘가 확산되면서 적절한 환경 관리로 고온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벼 키다리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못자리나 본 논 초기에 병에 걸린 포기는 발견 즉시 제거하고, 또한 출수기(이삭이 패는 시기)에 화기(꽃 그릇)로 감염하기 때문에 종자 생산 포장은 아족시스트로빈, 페림존액상수화제 등 적용약제를 사용해 방제해야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유채 활용법 축제, 기름, 비료 등... 다양하네!

- 유채 자원순환모델 현장적용...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향상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경관용 유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유채 자원순환 모델'을 현장 적용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 유채는 주로 경관용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면적은 2012년 2천 500ha에서 지난해 약 3천ha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 그동안 경관용 유채는 꽃거름 작물로 이용하고 대부분 종자수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채씨의 다양한 활용이 불가능했고,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축제가 끝나고 버려지던 유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봄철 유채꽃(농촌경관 증진, 지역축제와 연계)→유채기름(식용유)→유채박(유기질 비료, 가축사료)또는 폐식용유(바이오디젤)로 활용하는 '유채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 이와 함께 꽃피는 시기가 빠른 유채(중모7001)와 지방산 조성이 우수한 품종(중모7002)을 개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급했으며 경남 창녕 100ha, 전남 진도 50ha에 현장 적용 했다.
- 창녕의 경우, 지난 4월 남지유채단지에서 낙동강축제를 개최해 10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약 97억 경제적 효과)에 이바지했다.

- 이곳의 유채씨 총 수확량은 80톤(평균 수확량 800kg/ha) 정도로, 수확한 유채씨를 저온 압착 방법으로 착유할 경우 약 20톤의 유채기름과 60톤의 유채박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재배 농가소득은 2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 유채기름은 지역 특산품으로, 유채박은 유기질 비료로 친환경 농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 향후 유채재배가 보다 활성화 되면 자원순환모델을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국산화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CO₂) 감축(CO₂ 2.2톤 저감/바이오디젤 1톤)에도 한축을 담당할 것이다.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이경보 소장은 “대단위 경관용 유채 재배단지에서 유채 종자 수확과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유채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내산 친환경 유채기름으로 수입산 식용유에 대응해 틈새시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전라남도, 귀농인의 집 17곳 추가 조성

- 귀농·귀촌 희망자 농촌생활 경험하는 임시 주거지 -

- 전라남도는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국비 2억 5천만원 확보)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하반기 8개 시·군에 17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영농 기술 습득과 농촌생활을 경험하도록 임시 거주지를 조성해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사업이다.
- 시장·군수가 빈집을 무상 제공하거나, 도농 교류 운영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마을 내 빈집을 수리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 사용토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13개 시·군에 43개소의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내에 17개소를 추가 조성해 총 6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농업기술원에 교육, 창업, 농지주택 확보 등 귀농·귀촌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 지원하는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문의)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061-286-6250~3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태풍호우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8월 국지적 많은 비강한 태풍 예보...재해 유형별·품목별 체계적 대응 -

- 전라남도가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 10월까지 5개월간 농작물 등 분야별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해 피해 예방 대책 홍보와 피해시 인력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 또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재해 유형에 따른 품목별 관리 요령 등 농업인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 우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과수·고추·참깨 등은 지주 설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경우 결속 및 버팀목을 설치해야 한다.
-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축사 차광막 설치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창문 개폐시설 개보수, 한낮 시설하우스 내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 시설하우스, 축사 등 재해 취약시설 일제 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말까지 취약시설을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 특히 예측 불허의 기상이변 등으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키로 하고, 국·도비 등 560억원을 확보, 순보험료 가운데 80%를 지원한다.
- 또한 지난 4월에는 시·군 재해 담당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업 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농업용 목적 외 사용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법령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령은 경제단체, 지자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등을 토대로 관련 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을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저수지 수면 등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 대상에 따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사용료는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해 왔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경비도 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수입금의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을 체결한 기존 사용자도 계약 갱신 시 10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하게 되고, 사용경비는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사용경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 5월말 현재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저수지는 38개소에 이르며 이중 6개소는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상업발전을 하고 있다.
- 또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을 구체화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주택의 진출입로 확보 목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용·배수로 부지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해 왔으나, 장기간 사용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불편과 행정 비용이 발생해 왔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사용경비를 감면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 또한 용·배수로 부지 등을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 시 빈번한 계약 갱신 등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 그동안 농업용으로만 인식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래의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문의처
 - 지자체 관리 구역 : 농업생산기반시설 담당과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061-663-5546~48)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신선한 농산물 유통 위해 연구기관, 유통업체 손잡는다

- 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GS리테일과 업무협약 체결 -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허건량)은 GS리테일(대표이사 허연수)과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 연구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정보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가졌다.
-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원예작물을 제공하고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수확 후 관리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 협약 체결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생산유통 현장에 농산물 선도유지를 위한 품목별 수확 후 저장, 유통 기술을 제공하고 신선편이 농산물 등 최근 수요가 많지만 품질이 빨리 변하는 품목 등에 대한 선도유지 기술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 GS리테일에서는 산지 생산부터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업체 현장의 품질관리 현황과 손실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연중 신선한 과일·채소 유통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기도 했다.
-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연구기관과 유통 전문업체의 업무협약으로 앞으로 보다 신선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전망이다.
- 또한, 국내 농산물 손실률을 최소화해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8. 해외 농업정보

◆ 개도국 농업관리들 친환경 농업연수 새로운 희망 보았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의 ODA(공적개발원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 르완다·콩고·베트남·라오스·이집트·필리핀 등 아시아·아프리카 11개국 16명의 개도국 농업인재들은 벼·채소 과수 유기농 명인들의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각 연수국가의 현실에 맞게 친환경 농업을 접목시키는 기술과 방법, 판매전략 노하우를 배워 자국의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 이번 연수과정에 참여한 필리핀의 조세핀 포스티노(Josephine Faustino)씨는 자국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선진화된 한국의 친환경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움으로써 필리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 김성일 농업기술원장은 “3년 동안 추진하는 이번 연수를 통해 개도국 농업인들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아시아에 우리 양잠산업기술 전수

- 농촌진흥청, AFACI 5개 회원국 대상 '양잠기술 훈련'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아시아 양잠산업 발전과 선진 양잠기술 전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에서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회원국 대상 양잠기술 훈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에는 AFACI 회원 14나라 중 캄보디아·라오스·네팔·태국·베트남 등 5나라 양잠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훈련은 누에 사육기술, 누에 인공부화기술, 뽕밭 조성 및 관리기술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했으며, 선진 양잠기관 현장도 방문했다.
- 동남아시아는 기온이 높고 토질이 좋아 뽕나무 생육은 물론 누에를 연간 3회 이상 사육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누에품종과 양잠기술이 부족해 누에고치 생산성이 낮은 상황이다.
- 농촌진흥청 이명렬 잠사양봉소재과장은 “이번 훈련이 아시아 양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양잠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한국·일본·대만 모여 귀농·귀촌 정책 공유한다

- 한국·일본·대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귀농·귀촌 정책 흐름과 농촌사회 변화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이번 연수는 아시아국가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과 선진화된 분석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 아시아 농식품 안전관리 관계자 연수는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며 그동안 12개국 98명이 이수하였다.
- 초청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우리 농산물의 안전관리 관련 체계 교육, 분석 실습 및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 이론 교육에서는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 현황,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등과 함께 농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GAP친환경 인증제도, 원산지 관리제도 등의 다양한 업무를 소개한다.
- 또한,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 방법에 대한 실습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며,
- 농산물 생산농장, 가공, 포장 시설 및 판매업체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일련의 안전관리 절차를 배우게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6. 13.(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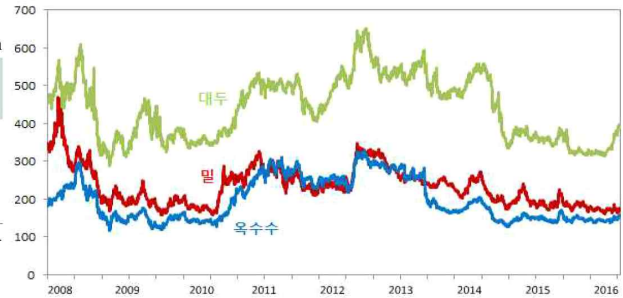
대두를 제외하고 연이를 하락한 옥수수, 밀 선물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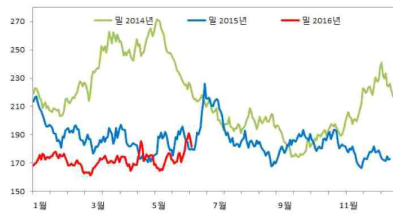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06.10)	전일대비	전월평균 ('16.5)	2015 평균
밀	181.88	▼3.0%	188	186
옥수수	166.53	▼0.8%	148	148
대두	432.91	▲0.2%	353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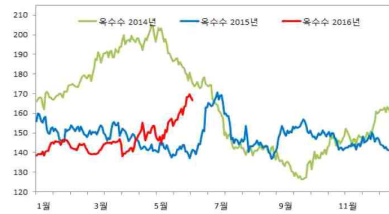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기술적 매도의 완화와 스캘어 포지션으로 인해 밀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3.0% 하락하였음. 인도와 경우 연속적인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입 관세 감축에 직면하여, 2016/17년 인도의 밀 수입은 10년 만에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함. 활황작목인 밀 계약은 한 주간 2.3% 상승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적색 연질밀 가격은 부셸 당 \$5.09에서 약 1센트 하락하였고, 적색 경질밀의 경우 \$4.82에서 약 2센트 하락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수요일 정점을 찍은 이후 이를 연속 하락세에 있음. 수확하기에 적합한 날씨 전망과 펀드 매수가 선물 가격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USDA에 의하면 2015/16년 옥수수의 기말재고량은 17억 부셸이 예상되며, 이는 5월 18억 부셸 보다 감소한 수치임. 이는 2016/17년 예상 기말 재고율인 21억 5300만 부셸보다도 적은 수치임.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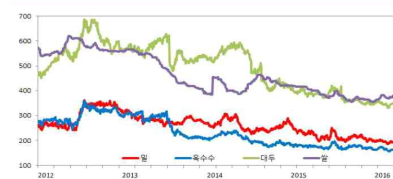


대두 선물가격은 투기적 매입과 미국의 공급량에 대한 수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활황작목인 대두의 계약은 한 주간 거의 4% 상승하였음. USDA에 의하면 대두의 국내 공급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문제로 인해 미국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일 것으로 예상됨.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7월 물 대두 가격은 부셸 당 \$11.80에서 약 4센트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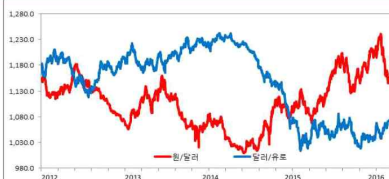
관련동향

- 규칙적인 수요 가운데 거의 변함없는 대두와 옥수수 수출 프리미엄.
- 10일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북미지역 생산 증가 전망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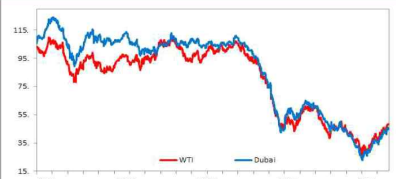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8	환율	원/달러	▲0.9%
	옥수수	192		달러/유로	▼0.6%
	대두	453	국제유가	WTI	▼1.3%
	쌀	427		Dubai	▼1.5%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7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6.09(수출가격), '16.06.13(환율), '16.06.1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sonmy@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2016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농업인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2016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 참가자격은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5. 11. ~ 6. 24.까지이다.
- 참가방법은 농업기술원 누리집(www.jares.go.kr)에 등록된 양식으로 우수 사례를 작성하여 각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 경진분야는 ICT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역 내 문화 확산, 스마트팜 활성화, 창업 아이디어 경진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진대회 우수사례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월 30일에 우수자 15명을 선발하여 7월 중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연구소 임경호 소장은 ICT 융복합 기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전남 농업인들에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61) 330-2582 전남농업기술원 김덕현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하세요

- 전남도, 29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

- 전라남도는 젊고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유도해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7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이 같은 시·군의 사업장에서 후계농·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복무 중인 경우와, 전문대·대학·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휴학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와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주소지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 시·군에서 영농정착 의욕 등 평가기준 적격자(평가 점수 400점 이상)에 대해 심사 후 도로 추천하고, 도는 오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요 인원을 제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병무청에서 시·군별 배정 인원을 확정한다.
- 소영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모든 산업이 그렇듯 농업 또한 변화와 혁신, 발전의 원동력이 사람이기에, 미래 농업을 이끌 많은 젊은이들이 후계농업경영인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를 발굴, 홍보하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16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선발 분야는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일반식품, 외식 등 4개 분야이며, 6월 27일까지 시·도(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 aT, 식품관련협회 등에서 추천받아 후보 브랜드를 모집한다.
- 각 지역의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과 농정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공모에 참가한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인지도평가, 현장평가, 제품평가 등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 추진일정 : 1차평가(서류평가, 6. 28.~6. 30.) → 2차 평가, 선정(종합평가, 7. 1.~8. 18.) → 파워브랜드 시상 및 전시(9월초)
- 금번에 선정되는 4개 분야 22개 농식품 파워 브랜드에 대해서는 9. 1.~9. 4.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16 대한민국 식품대전’ 기간 중에 대통령상 등 시상이 진행된다.
-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된 파워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한 홍보, 직거래 장터에서 전시, 판매,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64, jkj@epis.or.kr)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89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